

第144回國會

# 5·18光州民主化運動 真相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第11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8年 11月 24日 (木)

場 所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室(145號室)

### 議事日程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 糾明을 위한 聽聞會

### 審査된 案件

(10時8分 開議)

○委員長 文東煥 議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1次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를 開議합니다.

우리 聽聞會는 한 새로운 단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全前大統領이 延禧洞을 떠나시면서 모든 5共和國 때 責任을 자기가 지고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光州에서 일어난 비참한 사건도 자기의 責任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具體的으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내용과 性情을 聽聞會에서 밝혀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통한 표정으로 光州에서 희생된 者 그 遺家族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다고 그러시면서 그 恨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라 하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가라고 하면 가라고 하는데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밝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말이 타락을 해서 그 말하는 表面의 표현과 그 밑에 깔린 뜻이 다릅니다. 만약에 光州事態에 대해서 자기가 責任있는 것을 인정하고 聽聞會가 그 真相을 밝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심지어 國民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聽聞會에 나와서 이 사실을 밝혀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타락한 말을 깨고 光州의 비극의 真相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 責任이 그만큼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오늘 의 歷史를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은 악한 執權者들이 이런 二重의 言語를 가지고 國民들을 속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歷史는 그대로 진전합니다. 自由와 正義를 갈망하는 國民의 뜻이 진전하고 있습니다.

80年代初에 權座에 앉아서 애매한 사람을 罪人視하던 그 罪人들이 오늘 오히려 審判席에 서고 그들이 오히려 審判을 받는 자리에 섰다고 하는 이 사실로서 보아도 歷史는 갈 곳으로 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政治를 바로 잡고자 하는 우리 委員들은 이런 虛偽欺瞞術에 낙심하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꾸준히 걸어나가야 할 줄 압니다. 불행하게도 全前大統領까지도 真相을 밝혀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民正黨에서는 이 자리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政治的인 後續措置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과 真相을 밝히는 일과는 아무 關係가 없습니다. 政治가 어떻게 변모되어야 하든 간에 우리는 꾸준히 이 真相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民正黨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보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고 또 현재 4黨 總務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討論하고 있어서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에 별 수 없이 委員長으로서는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까지 이 聽聞會를 停會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당분간 停會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宣布합니다.

(10時14分 會議中止)

(繼續 開議되지 않았음)

○出席委員

文	東	煥	金	泳	鎮	辛	基	夏
李	海	瓊	趙	贊	衡	趙	洪	奎
崔	鳳	九	金	光	一	朴	泰	權
吳	景	義	李	仁	濟	張	石	和
金	文	元	金	仁	坤	玉	滿	鎬
朴	燦	鍾						

○委員 아닌出席議員

金	晉	榮	朴	英	淑	鄭	祥	容
鄭	雄	蔡	映	錫	盧	武	鉉	

○出席專門委員及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陳	在	勳	
立	法	審	議	官	金	永	善